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임세미¹, 염영란^{2*}

¹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The Effects of Stress Coping Method, Emotional Intelligence and Gratitude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Competen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Semi Lim¹, Young-Ran Yeom^{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2021년 11월 09일부터 11월 11일까지 G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학년 1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t-test, ANOVA, Kruskal-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은 감성지능, 감사성향,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총 변화량의 68%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성지능, 감사성향,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 의사소통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stress coping method, emotional intelligence, gratitude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s from 159 students who were in 2nd year of the nursing college in G city, from Nov 9 to 11, 2021.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Scheffe, Kruskal-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Statistically, communication competence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active stress coping method, emotional intelligence and gratitude disposition. Influencing factors on communication competence were emotional intelligence, gratitude disposition, and active stress coping method accounting for 68% of the total change. Based on this results, strategies to increase emotional intelligence, gratitude disposition, and active stress coping method are needed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College Students, Stress Coping Method, Emotional Intelligence, Gratitude Disposition, Communication competence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search funds from Gwangju University in 2022.

*Corresponding Author : Young-Ran Yeom(pseudoan@naver.com)

Received January 3, 2022

Revised February 5, 2022

Accepted March 20, 2022

Published March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병원에서의 의사소통은 매우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구두, 문서, 전화 등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1]. 특히 간호사는 병원 내 많은 의료진과 환자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어 임상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병원 내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의사소통능력은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원활하게 전달하는 능력으로[3] 복잡한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상태와 필수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효율적인 간호업무 수행함에 있어 간호사에게 필수적인 능력이다.

간호대학생은 예비간호사로서 3학년부터 임상실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4].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5], 감성지능[6], 의사소통능력[7] 등이 있으며, 공감능력이 낮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7].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도 주 영향요인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임상실습을 경험하기 전에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나타내는 대응 행동으로[8] 개인의 의사소통의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9].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거나 적응을 위한 관계의 개선 또는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10] 의사소통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성지능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1]. 감성지능은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의사소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12] 예비간호사로 교육과정을 밟는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성지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성향은 인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내적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요인으로 긍정적 경험을 하거나 긍정적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공헌을 인식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반화된 경향성이다[13]. 감사성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긍정적 특성을 갖고 삶의 만족도와 안녕감이 높았고[14,15],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유연한 대인관계,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관계가 있으며[13], 직무스트레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17] 감사를 많이 느낄수록 안녕감이 높았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감사성향은 스트레스 감소 및 삶의 만족과 안녕감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감성지능, 감사성향, 의사소통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 C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고와 표현, 인성 교육, 인간심리의 이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수업을 이수하고 현재 상담이론과 실제를 배우고 있는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표본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기준으로 효과크기 .2,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10개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32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총 159명의 대상자가 응답한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여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종교, 대인관계, 편입유무, 거주형태를 조사하였다.

2.3.2 스트레스 대처방식

Folkman과 Lazarus[8]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 [WCC])를 Kim[18]이 수정·보완하고 Park[19]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사회적 지지 추구(6문항), 문제중심 대처(6문항)로 구성된 적극적 대처(12문항)와 정서적 사고(6문항), 심미적 대처(6문항)로 구성된 소극적 대처(12문항)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전혀 사용하지 않음' 1점에서 '아주 많이 사용'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Park[19]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 적극적 대처는 .88, 소극적 대처는 .80이었다.

2.3.3 감성지능

Wong과 Low[11]가 개발한 감성지능 척도 WLEIS(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Jung[20]이 번안하고 Kim과 Choi[21]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하위요인으로 자기감성 이해(4문항), 타인감성 이해(4문항), 감성조절(4문항), 감성활용(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Choi[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자기감성 이해 .83, 타인감성 이해 .71, 감성조절 .74, 감성활용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 자기감성 이해 .90, 타인감성 이해 .85, 감성조절 .85, 감성활용 .88이었다.

2.3.4 감사성향

McCullough 등[13]이 개발한 감사성향척도 (Gratitude Questionnaire-6 [GQ-6])를 Kwon 등[14]이 번안한 한국판 감사 성향척도(Korean Gratitude Questionnaire-6 [K-GQ-6])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3, 6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 등[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3.5 의사소통능력

Rubin 등[3]이 개발한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ICC)를 Hur[22]가 개념을 추가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GICC)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10, 11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21년 11월 09일부터 11일까지 이루어졌고, 방법은 온라인 설문지를 만들어 링크를 배포한 후 자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보장, 비밀보장, 연구 철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연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작성 시 소요된 시간은 10~15분 정도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분석은 t-test, ANOVA,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였으며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27명(17.0%), '여자' 132명(83.0%)이었고 평균 연령은 24.08세이다. 종교는 '없음'이 115명(72.3%)으로 많았고, 대인관계가 '좋음' 90명(56.6%), 편입한 대상자는 10명(6.3%),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는 104명(65.4%)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27 (17.0)	24.08±5.92
	Female	132 (83.0)	
Age (yr)	≤24	117 (73.6)	24.08±5.92
	>25	42 (26.4)	
Religion	Yes	44 (27.7)	24.08±5.92
	No	115 (72.3)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90 (56.6)	24.08±5.92
	Moderate	66 (41.5)	
	Bad	3 (1.9)	
Transfer status	Yes	10 (6.3)	24.08±5.92
	No	149 (93.7)	
Residential status	Living with family	104 (65.4)	24.08±5.92
	Living without family	55 (34.6)	

3.2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 의사소통능력 정도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4점 만점에 평균 2.60±0.40점으로 하위영역의 적극적 대처방식은 2.69±0.49점, 소극적 대처방식은 2.51±0.46점이었다. 감성지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58±0.57점이었고 하위영역의 자기감성이해 3.75±

0.71점, 타인감성이해 3.71±0.66점, 감성조절 3.46±0.72점, 감성활용 3.41±0.75점으로 나타났다. 감사성향은 7점 만점에 평균 5.21±1.15점이었으며,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5±0.51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stress coping method, emotional intelligence, gratitude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N=159)

Variables	M±SD	Mini	Max	Range
Stress coping method	2.60±0.40	1.63	4.0	1-4
Active stress coping method	2.69±0.49	1.58	4.0	1-4
Passive stress coping method	2.51±0.46	1.5	4.0	1-4
Emotional intelligence	3.58±0.57	2.0	5.0	1-5
Self emotion appraisal	3.75±0.71	1.0	5.0	1-5
Other's emotion appraisal	3.71±0.66	1.75	5.0	1-5
Regulation of emotion	3.46±0.72	1.50	5.0	1-5
Use of emotion	3.41±0.75	1.25	5.0	1-5
Gratitude disposition	5.21±1.15	2.67	7.0	1-7
Communication competence	3.65±0.51	2.27	4.93	1-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egre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F/x2 (p) post hoc
Gender	Male	27 (17.0)	3.63±0.45	-0.31 (.752)
	Female	132 (83.0)	3.66±0.53	
Age (yr)	≤24	117 (73.6)	3.65±0.54	-0.27 (.790)
	>25	42 (26.4)	3.67±0.43	
Religion	Yes	44 (27.7)	3.61±0.48	-0.65 (.518)
	No	115 (72.3)	3.67±0.53	
Interpersonal relationship †	Gooda	90 (56.6)	3.75±0.56	10.12 (.006) a)b,c
	Moderateb	66 (41.5)	3.55±0.42	
	Badc	3 (1.9)	3.06±0.23	
Transfer status	Yes	10 (6.3)	3.51±0.42	-0.93 (.352)
	No	149 (93.7)	3.66±0.52	
Residential status	Living with family	104 (65.4)	3.72±0.50	2.40 (.018)
	Living without family	55 (34.6)	3.52±0.51	

† Kruskal-Wallis test

의사소통능력은 거주형태($t=2.40, p=.01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의사소통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chi^2=10.12, p=.00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대인관계가 '좋음'이 '보통'이나 '나쁨'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의사소통능력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r=.46, p<.001$), 감성지능($r=.74, p<.001$), 감사성향($r=.6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r=.41, p<.001$), 감사성향($r=.50,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ress coping method, emotional intelligence, gratitude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N=159)

Variables	1	2	3	4	5
	r(p)	r(p)	r(p)	r(p)	r(p)
1	1				
2	.41 (.001)	1			
3	.41 (.001)	.09 (.278)	1		
4	.31 (.001)	-.07 (.399)	.50 (.001)	1	
5	.46 (.001)	-.01 (.926)	.74 (.001)	.63 (.001)	1

1. Active stress coping method, 2. Passive stress coping method, 3. Emotional Intelligence, 4. Gratitude disposition, 5. Communication competence

3.5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거주형태, 대인관계를 가변수 처리 후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충족에 대한 검토의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독립적이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2.06

으로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또한 오차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공차한계(Tolerance)는 0.67~0.95,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6~1.50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 결과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 및 상호독립성이 만족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5.62, p<.001$) 수정된 결정계수는 .68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는 감성지능($\beta=.52, p<.001$), 감사성향($\beta=.31, p<.001$),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beta=.17, p=.001$)으로 총 변화량의 68%를 설명하였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159)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87	.18		4.85	<.001
Emotional intelligence	.46	.05	.52	9.33	<.001
Gratitude disposition	.14	.02	.31	5.70	<.001
Active stress coping	.18	.05	.17	3.33	.001
R2=.69, Adj. R2=.68, F=55.62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4점 만점에 평균 2.60점이었고, 하위영역은 적극적 대처방식 2.69점, 소극적 대처방식 2.51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2학년이 5점 만점에 3.12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학년별로 보면 3학년, 4학년 각각 3.08점, 3.06점으로 2학년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방식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23].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Kim[24]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학년, 3학년 모두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더 사용하고 있으나 3학년은 2학년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식의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임상실습 환경을 경험

하면서 적극적인 대처방식보다 소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극적인 대처방식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25] 코로나 19 상황에서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위해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기노출과 합리적 정서 훈련'[26]과 같은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58점이었고, 하위영역은 자기감성 이해 3.75점, 타인감성 이해 3.71점, 감성조절 3.46점, 감성활용 3.41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Oh와 Kong[27]의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3.57점, 하위영역은 각각 3.77점, 3.72점, 3.33점, 3.48점이었고, Yoo[6]의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3.54점, 하위영역은 각각 3.82점, 3.79점, 3.14점, 3.39점으로 하위영역에서는 자기감성 이해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감성조절과 감성활용 영역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은 1, 2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심리학의 이해 등의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자기와 타인에 대한 감성이해 점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3학년부터 시행되는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므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 능력은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에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을 강화하여 제공되어야겠다.

본 연구대상자의 감사성향은 7점 만점에 평균 5.21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Lee[28]의 연구에서 5.30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에 따라 감사성향을 살펴본 Jun과 Jo[29]의 연구에서 보건계열 학생은 5.49점, 예체능계열 학생은 4.81점으로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감사성향 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공계열별로 감사성향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확대연구 및 전공계열별로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Jo와 Park[30]의 연구에서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이 감사성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Yang[31]의 연구에서 3.57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Oh[32]의 연구에서는 3.82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Oh[32]의 연구 대상자는 4학년 학생이 62.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학년 학생보다 4학년 학생의 인수인계 자기효능감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임상실습 및 인수인계 경험이 의사소통능력 정도에 영향을 주어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33]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2학년에 국한되어 시행된 연구로 임상실습만족도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Yu[33]의 연구는 실습만족도에서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Yang[31]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만족도에서 '만족' 대상자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결과[34,35]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들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감성지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감사성향은 감성지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Kang과 Kim[36]의 정신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또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문제해결능력이 높다고 나타난 연구결과[37]와 비슷한 맥락이다. 따라서 의사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의 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임상실습을 경험하기 전에 대학에서 정해진 교육과정 외에 인성교육 프로그램[38], 차와 의사소통을 접목한 다담명상 프로그램[39]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 감사성향,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은 감성지능과 감사성향 정도가 높고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의사소통능력 정도가 높았다.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39]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향상은 자신과 타인감정의 이해를 통해 논리적으로 감정표현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 내의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사소통능력과 감사성향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감성지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능력과 감사성향이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41] 이들 간의 관계를 가능해볼 수 있겠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고 문제중심,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42]와 유사하다.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환자와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43] 문제해결 대처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 및 의사소통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가족과 함께 거주할수록 의사소통능력 정도가 높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 감사성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은 감성지능, 감사성향,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

식 순으로 설명력은 68%이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은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현장에서 환자, 보호자, 보건의료인과 소통을 하며 다학제적 치료를 위해 의사소통능력은 필수적이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고 매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화시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으로써 각 학년에서 감성지능, 감사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별 실천 전략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간호대학 2학년으로 대상자가 국한되었으므로 전국의 모든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 지역의 1개 대학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학년별, 지역별로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추후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측변수들을 추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감성지능과 감사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Y. Lee. (2015). Effective communication for patient safety.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8(2), 100-110.
DOI : 10.5124/jkma.2015.58.2.100
- [2] L. L. Hsu, Y. H. Huang & S. I. Hsieh. (2014). The effects of scenario based communication training on nurse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elf-efficacy and myocardial infarction knowledge.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95(3), 356-364.
DOI : 10.1016/j.pec.2014.03.101
- [3] R. Rubin, M. Martin, S. Bruning & D. Power. (1991).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development and test of a self-efficacy model*. In Annual Conference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 [4] A. K. Lee, H. S. You & I. H. Park. (2015).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 Administration*, 21(2), 154-163.
DOI : 10.11111/jkana.2015.21.2.154
- [5] Y. J. Jeong & J. K. Ko. (2016). Effects of personality and coping behavi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Stress*, 24(4), 296-302.
- [6] S. Y. Yoo. (2017). The relationships among focusing manner,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5), 781-799.
DOI : 10.22143/HSS21.8.5.44
- [7] M. K. Cho & H. Jeong. (2018). A convergence study of the effects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on clin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539-547.
DOI : 10.15207/JKCS.2018.9.11.539
- [8] S. Folkman & R. S. Lazaru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9] H. S. Jang. (2010). The differences of the college student'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the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and social-communication style. *Social Science Research*, 26(2), 1-19.
- [10] P. M. Ericson & J. W. Gardner. (2009). Two longitudinal studies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d its effects on college students' success. *Communication Quarterly*, 40, 127-137.
- [11] C. S. Wong & K. S. Lo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 [12] O. S. Lee & M. O. Gu.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749-2759.
DOI : 10.5762/KAIS.2013.14.6.2749
- [13] M. E. McCullough, R. A. Emmons & J. Tsang.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12-127.
DOI : 10.1037/0022-3514.82.1.112
- [14] S. J. Kwon, K. H. Kim & H. S. Lee. (2006).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gratitude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1), 177-190.
- [15] K. A. Ham, B. H. Byeon & S. M. Cheon.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gratitud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6), 2163-2176.
- [16] Y. S. Lee.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related variables in clinical nurses*.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17] J. H. Noh & M. G. Lee. (2011). Why should I be thankful?: The effects of gratitude on well-being in individuals under stres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1), 159-183.
- [18] J. H. Kim. (1987). *Relations of perceived stress, cognitive set, and coping behaviors to depression*.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19] J. Y. Park. (199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 type A & B ego-identity and stress coping*.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20] H. W. Jung. (2007).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Busan.
- [21] K. H. Kim & B. S. Choi. (2018).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emotional intelligence, and cultural orientation on conflict management : Focused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pplied music.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9), 594-605.
DOI : 10.5392/JKCA.2018.18.09.594
- [22]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 [23] S. M. Kim & T. Y. Hwang. (2014). Comparison of stress levels arising in clinical settings, stress coping mechanisms and clinical competency between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 606-616.
DOI : 10.5977/jkasne.2014.20.4.606
- [24] H. S. Lee & E. J. Kim. (2008). The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grade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4(1), 5-13.
- [25] H. S. Yoon, Y. M. Hwang, D. B. Kim & S. W. Jang. (2011). The effects self-differentiation stress coping methods and mental health on life

- adjustment in university.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10(2), 1-25.
- [26] Y. J. Choi, K. W. Lee, C. H. Jeong & A. R. Lee. (2009).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and rational-emotive training on communication ability, stress coping behavior,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2), 186-196.
- [27] E. J. Oh & J. H. Kong. (2017).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3), 245-259. DOI : <http://dx.doi.org/10.22143/HSS21.8.3.14>
- [28] M. R. Lee. (2020). The effect of anger and gratitude on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5(2), 173-180. DOI : [10.21032/jhis.2020.45.2.173](https://doi.org/10.21032/jhis.2020.45.2.173)
- [29] W. H. Jun & M. J. Jo. (2016). College students' anger expression, positive thinking, gratitude, and trait anger according to college major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2(2), 121-128. DOI : [10.14370/jewnr.2016.22.2.121](https://doi.org/10.14370/jewnr.2016.22.2.121)
- [30] G. Y. Jo & H. S. Park. (2019). The effects of the 'Becoming Happy I' program on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flow, and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8(4), 362-372. DOI : [10.12934/jkpmhn.2019.28.4.362](https://doi.org/10.12934/jkpmhn.2019.28.4.362)
- [31] J. J. Yang. (2020). The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5(4), 217-228. DOI : [10.21097/ksw.2020.11.15.4.217](https://doi.org/10.21097/ksw.2020.11.15.4.217)
- [32] H. S. Oh. (2020).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clinical competence and experience of handover on self-efficacy of handover reporting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4(4), 321-331. DOI : [10.21184/jkeia.2020.6.14.4.321](https://doi.org/10.21184/jkeia.2020.6.14.4.321)
- [33] M. O. Yu.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7), 406-413. DOI : [10.5762/KAIS.2019.20.7.406](https://doi.org/10.5762/KAIS.2019.20.7.406)
- [34] J. Y. Hong & J. A. Park. (2017). Effect of basic nursing skills, problem solving process, communication skill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17(10), 429-446. DOI : [10.22251/jlcci.2017.17.10.429](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0.429)
- [35] S. E. Jang, S. Y. Kim & N. H. Park. (2019). Factors influencing metacogni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idence in the performa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25(4), 448-458. DOI : [10.5977/jkasne.2019.25.4.448](https://doi.org/10.5977/jkasne.2019.25.4.448)
- [36] H. S. Kang & Y. Y. Kim. (2016). Influence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tress coping on turnover intention in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 141-151. DOI : [10.5762/KAIS.2016.17.1.141](https://doi.org/10.5762/KAIS.2016.17.1.141)
- [37] B. S. Lee. (2010). The impact of action learning team member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The mediation effect of learning coach's emotional intelligence perceived by team members.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20, 17-45.
- [38] M. Park. (2019). Effects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the University student's self-esteem,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3), 77-95.
- [39] H. K. Choi. (2021). Development of a Dadam meditation program to enhance communicative ability. *The Journal of tea culture & industry studies*, 52, 145-180.
- [40] M. H. Jeong. (2019).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esteem: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34(5), 1-25. DOI : [10.21719/IJTMS.34.5.1](https://doi.org/10.21719/IJTMS.34.5.1)
- [41] S. Y. Won & H. Choi. (2020). Impact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Medi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gratitude disposi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20(13), 909-926.
- [42] S. J. Shin & M. S. Ju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stress coping,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7(5),
441-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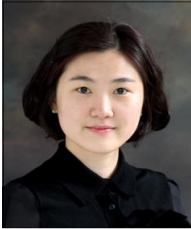
DOI : 10.22143/HSS21.7.5.23

- [43] B. Permana & M. G. R. Pandin. (2022). How to enhance empathy nursing students in education: literature review. *The Preprint Server fo Health Sciences*, 1-16.

DOI : 10.1101/2022.01.01.22268600

임 세 미(Semi Lim)

[정회원]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석사)
- 202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박사)
- 2021년 4월 ~ 현재 :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nccsemi@gmail.com

염 영 란(Youngran Yeom)

[정회원]



- 2007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9년 8월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pseudoan@naver.com